

# 농업시스템분석을 통한 원주 옷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 Study on the reasonable management of the lacquer in Wonju district through the agricultural system approach

Hyun-Seok Oh

Academy of the Regional Development

### 적 요

내발적 지역경제활성화와 문화적 기능 측면에서 원주지역의 중요한 부존자원인 옷은 중국산 생옷과 일본산 정제옷 수입으로 인해 옷나무재배농가, 채칠자그룹, 정제옷 가공업자, 칠기공예인간에 형성된 전통적 사회적 분업고리가 와해되고 있다. 원주시 등 공공부문이 기울여온 옷나무 식재사업은 지역농업시스템의 옷 생산잠재력을 꾸준히 향상시켜왔으나, 옷 생산을 위한 지역농업의 사회적 생산체계의 붕괴로 인해 옷생산잠재력의 현실화가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옷생산잠재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온 공공부문의 옷 산업육성노력이 향후에는 옷 관련 생산자그룹들로 구성된 사회적 생산체계의 복원을 통한 생산잠재력 현실화 문제에 집중돼야 할 것임을 제언하고 있다.

## I. 서론

### 1. 연구배경과 목적

강원도 원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옷칠(생옷 또는 생칠)은 부존자원을 토대로 한 지역의 내발적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칠기공예라는 문화적 기능 측면에서 지역정체성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중요한 경제적, 문화적 자산이다. 지역의 자연생태계가 제공하는 높은 품질의 우수성은 조선시대 이래 활발한 칠기공예활동을 뒷받침하여 왔으며, 이를 토대로 옷나무 재배와 채칠, 정제, 칠기생산 등 부존자원을 토대로 한 노동의 사회적 분업구조가 지역내에

형성돼 왔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옷의 이러한 경제적, 문화적 기능은 빠르게 퇴조하고 있다. 농림수산물에 대한 수입개방기조의 확산과 함께 국내에 수입되기 시작한 저가의 중국산 옷칠은 지역내 채칠활동을 크게 위축 시킴으로써 공공부문에서 기울여온 생옷생산능력 향상노력(옷나무 식재사업)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합성도료(카슈칠)와 일본산 수입 정제옷이 국내 정제옷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칠기공예부분은 국내 옷생산과의 전통적인 사회적 분업관계로부터 이탈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 칠기공예는 과거의 부존자원 소재지 입지형에서 점차 수입원료이용의 확대에 따른 내수시장입지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처럼 90년대 들어 한·중·일간에 형성된 옷

산업의 새로운 국제분업구조 속에서 지역부존자원을 토대로 형성된 옷의 사회적 분업구조는 옷 관련 각 생산자 그룹간 상호연결고리가 이완되면서 해체국면에 놓이게 되었으며, 그 결과 옷칠이 지너온 지역사회내의 문화적 기능 또한 퇴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통적 옷 산업의 붕괴에 대한 지역차원의 대응노력 또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강원도와 원주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90년대 들어 옷나무 식재사업 등 지역부존자원을 육성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옷나무 재배농가들과 채칠자들을 대상으로 생산자조합을 육성해 지역부존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옷 축제 등 문화적 접근을 병행함으로써 옷이 지닌 문화적 기능의 회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역사회 의 옷 산업육성은 옷나무 식재와 관리에 있어서 기왕에 나타났던 불합리한 측면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기대한 결과를 얻기 힘든 실정이다. 현재 원주 옷은 수요부진에 따라 옷나무 식재와 재배가 합리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지역부존자원 활용이라는 장기적 안목보다는 재배농가와 채칠자들의 단기적 이익극대화 동기에 의해 애써 가꾸어온 지역의 옷 생산능력이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옷나무재배농가→채칠업자→칠기업자로 이어지는 부가가치생산경로에서 각 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생산관리주체들이 옷나무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원주의 지역농업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옷 생산잠재력을 농업시스템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옷 관련 사회적 생산체계가 이러한 생산잠재력을 현실화하는 데 어떠한 기능상의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는지를 진단함으로써 합리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원주지역의 옷 생산과 관리체계를 지역농업시스템이라는 틀로서 파악하고, 지역농업시

스템의 하위체계인 경작생태계라는 측면에서 옷 생산능력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관리운영하는 옷 관련 생산자그룹을 사회적 생산체계라는 틀 속에서 파악할 것이다.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주로 옷 생산과 관련된 지역농업시스템의 사회적 생산체계에 분석의 중점이 두어질 것이다.

지역농업시스템의 옷 생산능력과 관련해서는 경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통한 분석이 시도되었다. 원주 옷칠의 품질과 지역생태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공공부문이 기울여온 식재사업과 농가의 옷나무 재배현황을 토대로 옷칠생산능력을 추정할 것이다. 이어 생산잠재력의 현실화와 관련하여 지역농업시스템의 옷 관련 사회적 생산체계에 대한 분석에서는 옷칠을 둘러싼 부가가치 발생경로의 각 단계에 위치한 생산자 그룹의 현황과 생산자 그룹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경작생태계의 생산잠재력과 사회적 생산체계의 현실화능력간의 괴리를 지적하고, 생산잠재력의 현실화가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향후 어떠한 내용들을 갖춰야하는지 검토하였다.

원주 지역농업시스템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제III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며, 이에 앞서 제II장에서는 옷 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현황과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원주 지역농업시스템이 보유한 옷 생산잠재력이 국내외적으로 어떠한 시장조건 속에 놓여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 II. 옷 산업의 국내외 현황과 동향

본 장에서는 원주지역 옷 산업과 관련한 국내외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옷칠생산에서 칠기생산에 이르는 가공단계별 국내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한국과 중국, 일본간에 형성되고 있는 국제분업구조의 내용과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국내 옷산업 현황

#### 가. 옷나무재배와 생옷생산

국내에서 옷나무 재배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은 강원도 원주지역(원주시, 원주군, 횡성군)과 전북 남원군(하영면, 산내면), 경남 함양군(마천면), 경북 칠곡군, 충북 옥천군(안내면, 안남면) 일대 등 5개 지역이다. 전통칠기생산과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옷나무재배가 이뤄져 왔으나, 현재 비교적 옷나무재배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지역은 원주지역과 남원군 두 개 지역이다. 이 중에서도 원주지역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옷나무 재배단지들을 이루고 있다.

옷나무는 전문적인 임업경영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반농가의 부업소득 확보차원에서 재배되고 있다. 채칠연령(6~7년생)에 도달한 옷나무는 전문채칠인 또는 중간상인에게 입목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며, 자가채칠을 하는 농가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옷나무는 살목채취를 통해 생칠을 채취한 후 2차로 화칠법(火漆)을 통해 추가로 채칠하거나 수피를 생산해 식용으로 판매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재배되고 있는 옷나무는 재래종과 1920~30년대 일본 등지에서 도입된 도입종, 이들간의 교잡종이 혼재하고 있다.<sup>1)</sup>

국내 생옷생산량은 91~94년 사이 연간 2~2.5톤 수준에 머무르던 것이, 95년도에는 예년의 절반수준으로 하락한 후 다시 96년도엔 전년대비 5배 이상 증가한 6톤대의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옷생산이 근년들어 이처럼 회복된 것은 90년대 초부터 활발히 추진된 강원도 등 공공부문의 옷나무 식재사업에 힘입어 생옷생산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산림청 임업통계자료와 원주시 자체자료에 의하면 원주산 생옷의 시장점유율은 90년대 전반부만 하더라도 40~60%대를 유지하였으나, 채칠과정에서의 이물질 투입에 따른 신용추락으로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생옷생산량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시장점유율도 극히 저조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원주시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근년들어 원주산 생옷생산량은 다시 회복국면을 맞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산 생옷은 90년대 초까지 전체생산량의 10~20%정도가 일본에 수출되었으나, 94년 이후에는 중국산 생옷의 대일진출과 국내산 생옷의 수출신용추락으로 대일수출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국내 최대의 옷나무 재배단지인 원주지역의 경우 93년까지 전체 생옷생산량의 70% 정도가 일본에 수출되었으나, 94년 이후 10%대로 수출이 격감한 후 근년에는 수출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 나. 정제옷가공

정제옷가공은 국내 옷산업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가내수공업적 생산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정제기술의 낙후로 인해 생산의 전문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sup>2)</sup> 일부 칠기공예업체들이 정제옷가공을 겸하고 있는데 근년 들어서는 국내칠기업체들이 국내산보다는 일본산 수입정제옷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국내산 생옷을 원료로 한 정제옷 가공활동을 중단하거나, 중국산 생옷을 수입해 원료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 고가의 옷칠보다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 칠기업계에서 점차 옷칠대용품으로 저가의 카슈칠을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국내 정제옷 가공활동이 한층 더 위축되고 있다.

표 1. 국내생옷생산추이

단위 : kg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전국	1,457	2,402	2,051	2,057	2,530	1,280	6,632	7,222	2,320	-
원주	984	1,086	1,037	1,039	1,125	242	94	81	528	395
점유율	67.8	45.2	41.5	50.5	44.7	18.9	1.4	1.1	22.8	-

자료 :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원주시 자체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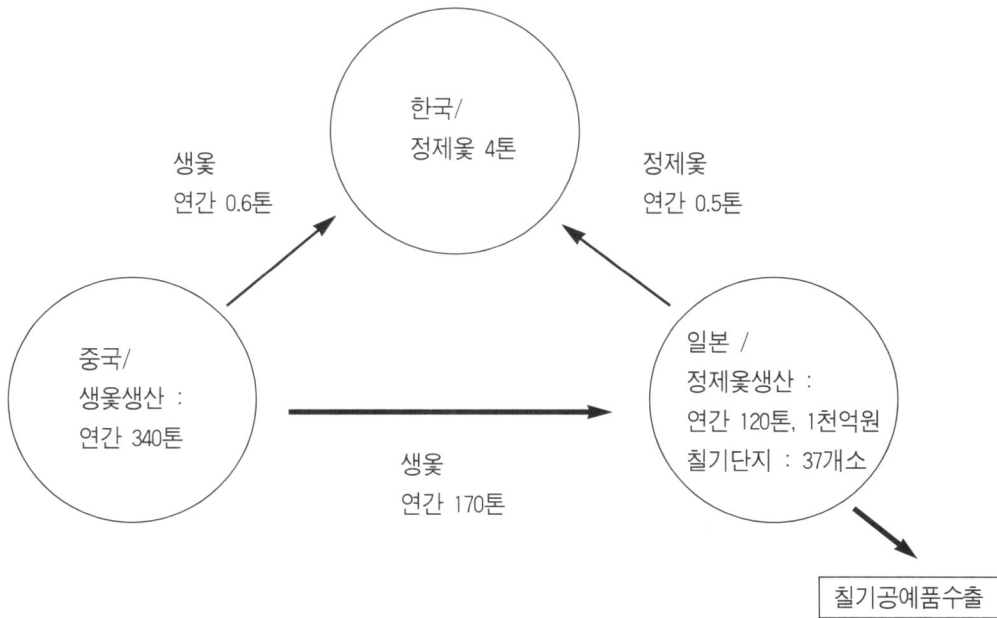


그림 1. 옷산업의 한일중간 국제분업구조

다. 칠기공예

국내에서 활동중인 칠기공예업체수는 전국적으로 26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약 40%에 달하는 110여개 업체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분포돼 있다. 칠기공예품의 국내시장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미비한 실정이나 업계에서는 연간 약 7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칠기공예업체 대부분은 영세업체로서 디자인 개발을 위한 투자가 어려워 변화하는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저품질 다량생산 위주로 칠기공예품 생산이 이뤄지고 있으며, 생산비 절감을 위해 업계에서는 도료로써 고가의 옷칠보다는 카슈칠을 사용하는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칠기업계의 연간 정제옷 사용규모는 2.5톤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반면, 카슈칠은 43톤 정도로 십수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생옷생산의 최종소비처인 칠기공예부분은 옷을 기초로 형성된 사회적 분업구조로부터 꾸준히

이탈해왔다. 전통적으로 원료생산지에 입지해 왔던 칠기공예 생산부분은 원료생산지 입지형에서 소비지 입지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원료생산과 가공생산부분 간의 공간적 일치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 결과 지역사회 고유의 사회적 분업구조와 그를 바탕으로 형성된 옷의 문화적 기능 또한 침체국면에 놓이게 된 것이다. 더구나 국내 칠기공예부분은 국내산 옷칠보다는 합성칠(카슈칠) 또는 일본산 정제옷에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냄으로써 지역부존자원 이용형 산업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2. 옷 산업을 둘러싼 한·중·일간 국제분업구조

90년을 전후해 국내 옷산업은 새로운 국제환경에 놓여지게 되었다. 생옷—정제옷—칠기공예로 구성된 옷산업에서 한·중·일간에 국제적 분업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옷산업은 생옷부분에서는 중국산의 가격경쟁력에 위축되고 있으며, 정제옷과 칠기생산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의 품

질경쟁력에 뒤처지고 있다.<sup>3)</sup> 중국산 생옷은 90년대 초부터 일본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일본의 높은 정제옷 가공기술력과 결합됨으로써, 일본산 정제옷 가공원료시장에서 90%대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일본의 칠기공예산업은 일본 국내외에서 형성된 상당한 규모의 칠기공예시장을 대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획득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과 중국이 각각 원료생산지와 가공 및 최종수요재 생산지로 전문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생옷과 정제가공부분이 퇴조하고 있는 가운데 칠기공예부문에서 옷칠보다 합성칠 사용이 확대되면서 칠기공예와 옷칠 간의 전통적 분업고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 3. 국내 생옷수요량 추정

임업통계자료와 무역자료를 통해 추정할 때 정제 가공부문과 칠기공예부문의 연간 생옷수요량은 92~96년 기준으로 연평균 6톤 정도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국내생옷수요량=국내 생옷생산량-생옷수출량+생옷수입량). 최근 들어 옷칠에 대한 산업적 수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칠기공예 및 정제가공부문의 생옷수요가 전체 생옷수요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옷칠의 산업적 이용도가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하면 큰 편차가 없을 것이다. 옷칠에 관한 무역통계는 생옷과 정제옷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산은 대부분 생옷을, 일본산은 정제옷을 가리키는 것으로 가정했다.

한편 국내 정제옷 수요량은 생옷수요량의 약 70% 정도에 해당하는 4톤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업계에서는 생옷의 정제수율을 약 70% 정도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규모의 국내 정제옷 수요규모는 일본의 그것에 비해 1/30에 불과한 규모이다.

## III. 농업시스템이론과 지역농업연구

### 1. 농업시스템이론의 내용과 구조

농업시스템연구는 지리적으로 동질한 공간단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파악하고 그 구조와 기능을 체계

적으로 연구하는 지역농업연구의 한 방법이다. 프랑스 농업농촌관련 연구집단들의 학제간 연구에 의해 개발된 농업시스템 분석방법은 농촌공간을 구조와 기능의 양측면에서 파악하고, 농촌공간내 행위인자들 상호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현장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목표에 접근해 나가는 연구방법이다.<sup>4)</sup>

농업시스템분석을 통한 지역농업연구는 농촌공간을 파악하는 관점의 독창성에 방법론으로서의 특징이 있다. 일반시스템이론의 구성이 그렇듯이 농업시스템이론 또한 동질한 지리적 단위로 구획되는 공간단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전체시스템을 구성하는 하위체계들의 구조와 기능을 상호관계적으로 파악해나감으로써 지역단위의 농업을 분석, 진단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파악된 농촌공간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그것을 구성하는 하위체계들의 구조와 기능들로 구성된 구성체로 파악될 수 있다.

지역농업시스템의 '구조'는 크게 자연생태계(écosystème), 경작생태계(écosystème cultivé), 사회적 생산체계(systeme social productif)의 하위체계(sous-système)들로 구성된다. 여기서 자연생태계란 말 그대로 정주사회가 여러 필요에 의해 인의화(humanisé)하지 않고 남겨둔 자연 그대로의 공간을 가리킨다. 반면, 경작생태계는 정주사회가 의식주 등 여러 필요에 의해(주로 식량 확보) 자연생태계의 일부공간을 인의화한 공간으로서 일정한 방식의 관리가 뒤따르는 공간이다. 경작생태계에 해당하는 공간은 주로 농업 생산을 위해 정주사회가 오랜 세월을 걸쳐 개간, 정비를 통해 관리해온 공간으로서, 인구압력과 같은 사회적 요인의 변동에 따라 경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가 수반된다. 경작생태계에 대한 정주사회의 노력은 농업활동이라는 유기물추출행위(농축산물의 생산)에 대응해 경작생태계의 토지비옥도(fertilité)를 어떻게 유지하고 재생산할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된다.<sup>5)</sup> 마지막으로 사회적 생산체계란 경작생태계의 유기물순환기능으로부터 농업생산물을 추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제 생산수단들을 조직화한 생산단위(unité de production/농가)들이 모여있는 공간(농촌 마을)에 해당한다.<sup>6)</sup>

이렇게 하위체계들의 구성체로서 파악된 지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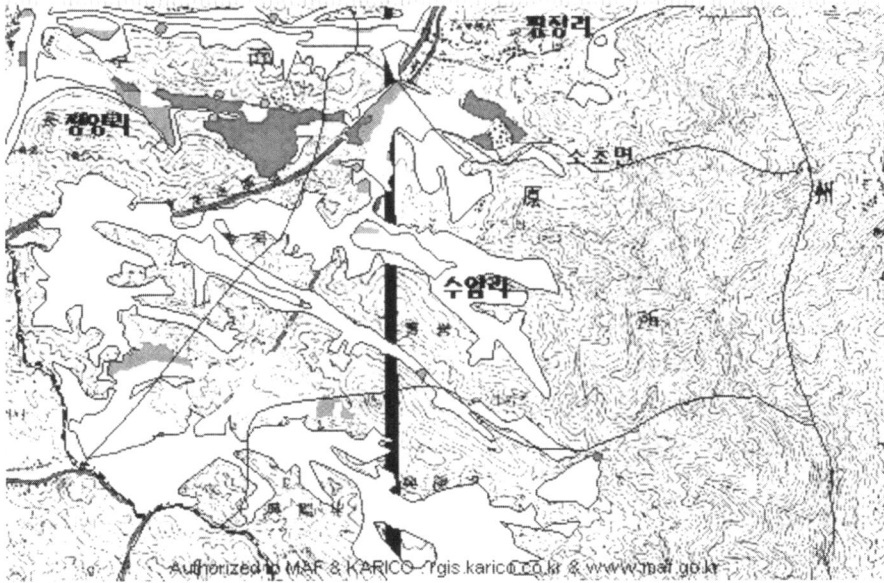


그림 2. 지역농업시스템의 구조

자료 :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지형정보시스템(www.rgis.karico.co.kr)

농업시스템은 연구의 필요에 따라 각 하위체계들을 다시 그것을 구성하는 새로운 하위체계들의 구성체로 파악하고, 개별 하위체계들의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전체시스템에 대한 분석과 진단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은 지역농업계획 또는 농촌계획 등의 분야에서 취하고 있는 분석→진단→계획→실천→평가의 계획행위에 있어 초기단계를 구성하는 분석과 진단에 있어 유효한 연구방법이 될 수 있다.

## 2. 원주지역농업연구에서의 농업시스템이론의 적용

울칠생산과 관련해 원주지역농업을 농업시스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두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지역농업시스템의 생산능력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생산능력을 현실화 할수 있는 능력에 관계된 것이다. 이 두 가지 능력상의 괴리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목적인 울의 합리적 관리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농업시스템의 생산능력은 지역농업시스템의

경작생태계와 관련한 것으로서, 울칠의 품질과 잠재적 생산능력을 좌우한다. 울 나무 식재면적과 재배면적, 입목밀도, 연령별 및 흉고(胸高)별 재배입목수 및 입목밀도 등이 지역농업시스템의 울칠생산능력에 작용하는 주요 변수들이다. 이 밖에도 경작생태계(경지)의 울나무 재배가능면적 비율 또한 울칠생산능력을 좌우하는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지역농업시스템의 울칠생산능력은 생산잠재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울나무 재배 이후의 채질, 정제, 칠기 등 일련의 부가가치 생산경로는 울칠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전달되는 경로로서, 이를 통해서만이 울칠생산의 현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울칠 관련 부가가치경로에서 파악되는 각 단계의 생산자 그룹들을 사회적 생산체계로 파악하고, 이러한 사회적 생산체계에 의한 생울생산 가능량이 별도로 파악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작생태계의 생산잠재력과 사회적 생산체계의 생산현실화능력을 구분해 파악함으로써 울칠 생산잠재력의 현실화를 제약하는 요인들을 사회적 체계내의 관계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향후 원주 울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IV. 원주 옷과 지역농업시스템

##### 1. 지역농업시스템의 구조와 기능

###### 가. 지역농업시스템의 구조

원주지역 농업시스템은 그 구조에 있어서 우리나라 여타 지역 농촌의 그것과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치악산과 태백산이 남북으로 놓인 분지형상구조에 위치한 원주지역은, 분지에 형성된 충적평야지대와 산자락에 형성된 구릉지 및 야산지대가 농업생산을 위한 공간으로서 경작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경작생태계 주변은 경지화가 어려운 산림지로 둘러싸여 있다. 경작생태계를 다시 하위체계로 구분하면 평야지대의 답작지대와 구릉지 및 산자락에 형성된 야산지대 내의 과수지대, 그리고 밭지대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경작생태계를 관리, 유지하는 생산단위(농가)들은 경지절약을 위해 경지화가 어려운 공간에 주로 입지해 있다.

강원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8년 현재 전체 산림면적은 6만2천여ha로서 전체 경지면적 9천9백ha의 6.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농업시스템의 구조에 있어 하위체계인 자연생태계와 경작생태계의 구성비가 1:6에 달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평야 및 구릉지대에 위치한 지역들의 경우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인데, 원주지역의 경우 산악지형이 많이 분포돼 있어 경지화가 어려운 지형적 조건이 작용한 결과이다. 전체 산림면적 중 약 65%는 사유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가당 평균 보유임야는 4.9ha로 평균 보유경지면적의 4배에 이르고 있다. 경작생태계로 파악되는 전체 경지면적 가운데 논

과 밭의 비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논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원주 지역농업시스템 내에서 옷나무 재배공간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협소하다. 옷나무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옷 생산을 위한 경작생태계의 공간 이용비율은 1%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옷나무 재배농가의 경우 농가당 평균 보유경지 및 임야의 2~3%에 달하는 공간을 옷나무재배에 할당하고 있다.

사회적 생산체계 측면에서 옷나무 재배농가는 소수를 구성한다. 전체 옷나무 재배농가수는 약 250여호로 전체농가수의 3% 수준에 불과하다. 옷나무 재배농가는 원주시 주변의 소초면 등 11개 농촌 읍면동에 분포해 있으며, 옷나무는 대부분 사유림에 속하는 야산지대의 휴경지나 밭두둑과 같은 휴반, 산록부위에 위치한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다. 농가당 평균 옷나무 재배규모는 3000주 이하로 대부분 소규모 부업재배이다.

###### 나. 옷칠의 품질과 지역농업시스템의 기능

원주 옷칠의 품질은 지역생태계 고유의 생태학적 특질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원주산 옷칠이 오랫동안 국내외적으로 높은 명성을 누려온 주된 이유는 과학적인 칠액성분 비교분석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주산 옷칠은 옷산(우루시올)성분이 높고 수분성분이 낮아 고품질 칠액으로 평가되고 있다.<sup>7)</sup>

원주 옷칠의 품질은 지역생태계의 기후적 조건과 지형적 조건이 갖는 특수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원주지역은 치악산과 태백산이 남북으로 놓인 분지형상구조로서 대륙성기후와 해안성기후가 교차하고 있다.

표 2. 원주지역농업시스템의 구조 (1998년)

산림지(ha) / 자연생태계				경지(ha) / 경작생태계			농가수(호) / 사회적 생산체계	농가당 가용면적(ha)	
전체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전체	논	밭		임야면적	경지면적
62,111	8,130	13,423	40,558	9,968	5,222	4,746	8,293	4.9	1.20

자료 : 강원도 농어업정책과, 1999

이에 따라 여름철에는 짧은 시간 동안 비가 자주 오는 반면, 겨울철에는 분지적 특성으로 인해 기온이 매우 낮다. 이러한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에도 불구하고 분산적인 강우가 많아 표근인 지표면에 습기가 비교적 적기에 공급됨으로써 옷나무 생육에 양호한 환경을 이루고 있다. 토양은 중성 또는 약알카리성 토양으로서 배수가 용이하며, 토심이 두꺼워 수분이 적절히 유지됨으로써 표근성 식물에게는 좋은 서식환경이 되고 있다.

2. 경작생태계의 옷칠생산능력(잠재력)

지역농업시스템의 옷칠생산능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III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옷나무 식재면적과 재배면적, 입목밀도, 연령별 및 흉고(胸高)별 재배입목수 및 입목밀도 등에 관한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 단계에서는 이러한 통계자료가 미비해 정확한 추산이 어려우나, 임업통계자료와 원주시 자체자료를 바탕으로 원주지역 농업시

스템의 옷칠생산능력(잠재력)을 추정하기로 한다.

가. 옷나무 식재 현황

지역농업시스템의 옷칠생산능력은 공공부문의 옷나무 식재사업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일정연령이 지난 옷나무는 채질을 위해 재배농가에서 채질인들에게 입목상태로 판매돼 몇 차례의 채질작업이 끝나면 폐기되기 때문에 옷나무 식재는 지역농업시스템의 옷칠생산능력 재생산의 기초가 되고 있다. 92년 이후 강원도와 원주시는 희망농가들을 대상으로 옷나무 묘목을 분양하는 방법으로 식재사업을 펼쳐왔으며, 92~96년 사이에는 강원도가 옷나무 식재사업을 주관하다가, 99년 이후에는 원주시가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99년까지 원주지역의 옷나무 총식재량은 258ha, 74만주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80%가 강원도가 추진한 '92~96년 5개년 옷나무 식재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97~98년 사이에는 옷나무 식재사업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99년 이후 원주시가 '옷산업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옷나

표 3. 산지별 옷칠의 성분비교

구분(중급기준)	옷산(우루시올)	고무질(다당류)	함질소물질(당단백류)	수분
원주산	72.5	7.9	3.5	16.1
남원산	66.7	3.8	1.6	27.9
일본산	67.2	7.4	1.8	23.6
중국산	62.1	8.3	2.1	27.5

자료 : 정근, 옷, 1985.

표 4. 원주지역 옷나무 식재현황

식재년도	92년이전	강원도 5개년계획				1996	1992-96 소계	1997	1998	원주시계획 1999
		1992	1993	1994	1995					
면적(ha)	32	10	75	40	40	31	196	-	-	30
수량(천본)	62	30	225	120	120	93	588	-	-	90

자료 : 원주시, 2000



무 식재사업을 재추진하면서 총 30ha, 9만주의 옷나무를 식재하였다.

**나. 옷나무 재배 현황**

공공부문의 옷나무 식재규모와 농가차원의 실제 재배규모 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원주시에 따르면 식재된 옷나무의 상당수가 간벌이나 기타 여러 이유로 인해 옷칠채취가 가능한 연령대(6~7년)에 도달하기 전에 소실되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식재량의 약 30%정도가 채칠연령대에 도달하기 전에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5는 원주시가 1998년에 실시한 '옷나무 재배현황 실태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농가의 옷나무 재배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97년 현재 옷나무 재배규모는 32ha, 총 6만2천주로 식재량의 1/10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통계는 옷칠채취가 가능한 연령대의 옷나무 재배규모를 가리키는 것으로, 원주시는 이를 토대로 연간 옷칠생산능력을 6.2톤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주당 옷칠생산량이 연간 약 100g정도에 달한다는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원주시는 옷칠생산능력을 보유한 옷나무의 대부분이 92년 이후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된 옷나무 식재사업을 통해 조립된 유령입목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원주시는 2000년경부터는 연간 6톤 이상의 생옷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모의 옷칠생산능력은 식재된 옷나무가 체계적으로 재배관리되었을 때 가능한 것으로서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다. 소규모 농가부업형태로 넓은 지역에 분산 재배되고 있는 옷나무를 연령별, 흉고별 등 채칠가능 형태별로 정확히 파악한다

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자료의 통계적 신빙성이 매우 낮다.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원주지역 생옷생산량은 0.4톤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돼, 사회적 생산체계의 채칠능력의 한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주시의 이와 같은 옷칠생산능력 추정은 현실과 거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사회적 생산체계와 생옷생산잠재력의 현실화**

앞서 파악한 지역농업시스템의 옷칠생산잠재력은 칠기공예 → 정제가공 → 채칠 → 옷나무재배로 이어지는 옷칠에 대한 사회적 수요경로를 통해 현실화된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경로의 역은 옷 생산과 관련한 부가가치 발생경로를 나타내는데, 각 단계에 위치한 생산자그룹들은 사회적 생산체계의 하위체계를 구성한다. 사회적 생산체계의 구조와 기능을 통해 지역농업시스템이 보유한 생옷생산잠재력의 현실화 문제를 진단한다.

가. 옷의 부가가치생산경로와 사회적 생산체계의 구조  
지역농업시스템의 옷칠생산잠재력을 관리이용하는 사회적 생산체계는 부가가치 생산경로에서 파악한 것처럼 옷나무재배농가, 채칠자, 정제가공업자 및 칠기업자로 구성된다. 그림 3에서 보듯이 하위체계로서의 생산자그룹들은 1:4:12의 개체수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가공단계별로 피라미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옷나무의 재생산은 전적으로 공공부문의 개입(농가 육묘분양)에 의존하고 있다.

부가가치생산경로를 따라 파악된 원주 옷의 사회적 생산체계의 내부적 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옷나무를 재배하는 농가는 원주시 등

**표 5. 원주지역 옷나무 재배현황**

구분	1991년 이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면적(ha)	80	9	43	34	33	29	32
수량(본)	237,450	21,940	104,370	85,690	86,230	73,910	62,000

자료: 원주시, 옷나무 재배현황 실태보고서,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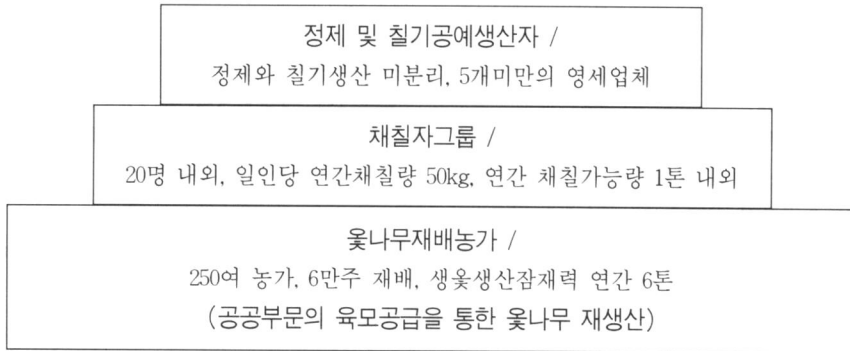


그림 3. 원주 옷의 사회적 생산체계의 구조

공공부문으로부터 주당 1천원의 가격에 묘목을 분양 받아 6~7년 재배 후 채칠자들에게 입목상태로 판매하고 있다. 250호의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옷나무는 총 6만주에 달해, 연간 6톤 내외의 생옷생산잠재력이 이들 농가에 의해 보유하고 있다. 직접 채칠작업을 수행하는 농가는 없으며, 전문기능인들에 의해 채칠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20여명 안팎의 채칠기능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채칠인력 일인당 연간 평균 채칠량은 50kg 정도로, 이들이 보유한 연간 채칠가능량은 1톤에 이른다. 채취된 생옷은 원주 지역이나 외지의 정제업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는데, kg당 25만원 안팎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정제옷은 kg당 4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칠기업체에 공급되고 있다. 원주지역의 경우에는 칠기공예부분과 정제부분이 미분리 상태로 칠기업체가 직접 정제옷을 가공하고 있

다. 칠기업체(정제업체)수는 대부분 영세해 5개 미만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규모로는 지역농업시스템의 생옷생산잠재력은 물론 채칠가능량마저도 소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이와 같은 옷의 사회적 생산체계 가운데서 한·중·일간 옷산업의 국제분업구조 속에서 가장 취약해지고 있는 부분은 채칠 및 정제옷 가공부분이다. 원주산 생옷가격의 1/3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중국산 생옷은 채칠자그룹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으며, 일본산 정제옷과 합성칠 사용의 확대는 정제가공과 칠기부분의 전문화를 가로막고 있다.

옷의 가공단계별 부가가치생산은 표 6과 같다

표 6. 옷나무재배에 따른 가공단계별 부가가치생산

생산단계	생산주체	원가	판매가	부가가치생산	비고	생산자수	생산형태
육목	육목업자		1,000원/주				
식재관리	재배농가	1,000원/주	5,000원/주	4,000원/주	7-8년 재배	250호 내외	농가부업
채칠	채칠업자	5,000원/주	25,000원/100g	20,000원/주	100g/주	20명내외	채칠기능인
정제	가공업자	25,000원/100g	40,000원/100g	15,000원/주		5개미만	영세칠기업자
칠기	칠기업자	90,000원	300,000원	210,000원	정제옷 + 원목		

자료 : 원주시

나. 하위체계로서의 생산자그룹의 기능

1) 옷나무 재배농가

옷나무 재배농가수는 근년들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1995년 302호에서 1998년엔 247호로 3년 사이 약 20%가 감소하였다. 재배농가들은 소초면 등 11개 농촌 읍 면 동에 분산돼 있으며, 1ha 내외의 영세농이 대부분이다. 전문적인 임업경영과는 거리가 멀고 대부분 휴경지나 밭두둑, 산록부위의 임야를 이용한 부업적 재배가 대부분이다. 농가당 평균 재배면적은 1ha 미만이며, 식재수는 2,600주 정도이다. 묘목은 공공부문의 식재사업을 통해 주당 1천원에 공급받고 있으며, 6~7년 정도 재배해 중간상인이나 채칠자에게 주당 5천원의 가격으로 입목상태에서 판매한다. 기술적인 문제로 농가가 직접 옷칠을 채취하는 경우는 드물다. 옷나무는 채칠연령에 도달한 후, 맹아갱신법으로 7~8년을 주기로 4~5회 정도 생옷생산이 가능하다.

식재된 옷나무는 관리부실로 약 30% 정도가 채칠 가능 연령대에 도달하기 전에 훼손되고 있다. 휴한지 등을 이용한 분산재배로 합리적 관리가 어렵고, 옷나무재배의 부업적 성격으로 인해 수익성 개념이 결여돼 있다. 이러한 재배관리의 불합리성은 채칠작업의 비효율을 가져와 생산성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재배와 관리, 채칠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생산자조합의 결성을 통해 개별농가의 옷나무재배 공간을 연령별, 흉고별 등으로 집단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채칠자그룹

채칠작업은 보통 6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루어지며, 옷 채취를 전문으로 하는 채칠전문기능인들이 담당

하고 있다. 채칠작업은 거의 인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채칠인력의 노동생산성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근년들어 청장년층의 채칠기능습득 기피현상이 나타나 채칠인력의 감소와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원주시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채칠기능인의 평균연령은 54세에 달하고 있으며, 채칠인력수는 90년대 중반 30명에서 최근에는 20명 미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채칠인력규모는 지역농업시스템의 옷칠 생산잠재력을 현실화에 하는데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일인당 연간 평균채칠량을 50kg 정도로 볼 때 생옷채칠가능량은 1톤 정도에 불과해, 생옷생산잠재력의 1/6 정도만을 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채칠부분에서의 이러한 제약요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식재사업을 통한 생옷생산잠재력 향상노력은 기대한 결과를 거두기 어렵다. 채칠기능인들에 대한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채칠인력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정제옷가공과 칠기공예

정제가공과 칠기공예부문은 시장이 협소해 미분리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원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5개 미만의 영세 칠기공예업체들의 활동으로는 지역 내 생옷생산잠재력은 물론 채칠가능량도 현실화하기 어렵다.

수도권에 소재한 칠기공예업체들을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옷의 사회적 생산체계를 확대복원하는 한편, 정제가공공장설립을 통해 생옷생산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앞서 파악한 대로 원주지역의 생옷생산잠재력을 6톤 정도라고 추정할 때, 이는 국내수요량과 비슷한 규모로서, 우선

표 7. 원주시내 옷칠채취 전문인력연령분포

구분	30~40세	41~50세	51~60세	61~70세	계	평균연령
채취자수(명)	3	1	5	5	14	54세
분포(%)	21	1	36	36	100	

자료 : 원주시

내수시장 확보를 통해 대외신용도를 높인 후, 세계 최대의 옷칠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일본시장 진출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정제옷 가공기술의 개발노력과 상품화, 마케팅전략이 요구된다.

## 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주 옷을 둘러싼 국내의 시장동향에 대한 분석결과 90년대 이후 형성된 한중일간의 새로운 국제분업구조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옷 원료생산지와 옷 가공품 생산지로 전문화, 이원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옷 산업의 입지는 점차 협소해지고 있다. 중국산 생옷과 일본산 정제옷 수입은 원주지역에 형성된 전통적인 옷의 사회적 분업구조를 해체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공공부문이 90년대 들어 추진해온 옷나무 식재사업 등 생옷생산능력 향상노력이 기대했던 결실을 거두기 어렵다.

둘째, 지역농업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볼 때, 원주의 옷칠생산능력(잠재력)은 채칠생산능력과의 괴리로 인해 생산잠재력의 1/6 정도만이 현실화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옷 산업의 새로운 국제분업구조 속에서 원주지역의 사회적 생산체계를 구성해왔던 생산자그룹의 일부가 기존의 분업구조 속에서 꾸준히 이탈한 데 따른 것이다.

셋째, 생옷생산잠재력과 채칠생산능력 간의 괴리는 공공부문이 추진해온 옷나무 식재사업이 재배농가와 채칠자들 사이에서 단기 이익 극대화라는 차원에서 부적절하게 관리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 결과 사유림을 대상으로 한 옷나무 식재사업의 공익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을 토대로 향후 원주지역 옷의 합리적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집중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한·중·일간 옷 산업의 국제분업구조 속에서 원주 옷 산업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문제이다. 생

옷생산에서부터 칠기공예에 이르는 이원된 사회적 분업구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채칠자그룹과 칠기공예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원주지역이 칠기생산지로서의 지역정체성을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부존자원인 옷을 소재로 한 사회적 분업구조가 지역내에서 확대복원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개발이 요구된다. 재배농가들을 중심으로 한 생산자조합의 결성, 전문채칠인 양성, 현대화된 정제가공공장의 설립과 운영, 칠기공예업체의 지역내 유치 등이 그러한 시책들의 주요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옷 축제 등 문화적 접근은 이와 같은 실물적 차원의 접근과 병행돼야 할 것이다.

둘째, 통계적 신빙성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원주지역이 보유한 생옷생산잠재력은 국내 생옷수요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품질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춰 일본산 정제옷과 중국산 생옷에 적절히 대응해 나간다면, 생산잠재력의 현실화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주지역의 높은 생옷품질은 지역생태계 고유의 특질로부터 기인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정제기술개발과 마케팅능력의 제고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누가, 어떻게라는 문제는 계속 과제로 남아있다. 한편, 세계 최대 칠기생산국인 일본시장에 대한 접근노력이 미미했던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일본정제옷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 수출전략을 추진한다면, 원주지역 생옷생산잠재력의 현실화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셋째, 공공부문의 옷산업에 대한 개입노력은 지금까지 주로 식재사업 등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한 생산잠재력 향상에 주력해왔으나, 향후에는 채칠부분과 정제부분의 생산능력향상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주로 사유림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옷나무 식재사업도 공익성확보는 물론 공공관리의 용이성과 채칠 및 정제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개입여부를 고려해, 공유림과 국유림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 주

- 1) 옷나무는 자용이주인 관계로 개체간의 변이가

심하며, 이러한 변이로 인해 생칠수확량에 큰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 2) 정제옷 생산기술은 1980년대 후반까지도 일본식 정제법에 의존해왔으나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정제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이 칠기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일본의 교반식 정제기법을 모방한 것으로서 광택제, 전조제 등 보조제를 이용한 중금속 정제칠 수준이며, 고투명 정제칠 및 문화재 보수 등을 위한 고품질 다기능 정제기술 개발이 미흡해 정제옷의 상품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일본의 경우 가업으로 전수돼온 정제기술이 계승발전돼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품질별로 차등화가 이뤄져 상품화될 정도로 전문화가 진전돼 있다. 중국의 칠액정제기술수준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중량 및 광택을 높이기 위해 유동 또는 동백기름을 첨가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장경쟁이 발달돼 있지 못해 상업적인 칠액정제활동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3) 생칠가격은 국내산이 관당(3.75kg) 1백만원 안팎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중국산 원액은 이의 1/3 수준의 가격으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반면 일본산 정제옷은 국내산보다 2~3배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 4) 농업시스템 연구동향과 응용분야 등에 관해서는 다음의 문헌들을 참조. J. Brossier, L. de Bonneval, E. Landais, *Systems studies i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Paris: INRA-Eds, 1993; CIRAD-SAR, *Recherches-système en agriculture et développement rural*, Symposium international, Montpellier, France-21-25 nov, 1994.
- 5) 농업이란 결국 자연생태계의 유기물 순환체계에 대한 개입으로서 필요한 유기물(농산물 및 축산물)을 축출(exportation)하는 행위이다. Georges Bertrand, "Pour une histoire écologique de la France rurale," in *Histoire de la France rurale*,

*rurale*, vol. I, Paris: Seuil, 1975, pp. 43~82.

- 6) 농업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는 줄고 참조, "지역농업개발의 농업시스템이론적 접근: 농촌공간의 구조와 기능의 체계적 해석,"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5권 제1호, 1998.
- 7) 지리적 요인에 기인한 품질의 우수성은 지리적 표시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의 기초가 되는 추세에 있어 원주 옷칠은 지역고유의 상품브랜드로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 참고문헌

1.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지형정보시스템(www.rgis.karico.co.kr)」.
2.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1992~1998.
3. 오현석 외(1999), 「원주 옷의 지역특화산업화방안 연구」, 원주시.
4. 오현석(1998), "지역농업개발의 농업시스템이론적 접근: 농촌공간의 구조와 기능의 체계적 해석,"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5권 제1호.
5. 원주시(1998), 「옷나무재배현황실태보고서」.
6. 장석소(1998), "원주지역 옷나무 자원화를 위한 짧은 검토," 「지방화시대에 원주권 지역농업의 발전전략 심포지엄 논문집」.
7. 전북대(1997), 「전라북도-일본 이와테현간 옷칠 관련 협력방안연구」.
8. 정균(1985), 「옷」.
9. 한국무역통계, 「무역정보서비스(KOTIS)」.
10. CIRAD-SAR(1994), *Recherches-système en agriculture et développement rural, symposium international*, Montpellier, France-21-25 nov.
11. Georges Bertrand(1975), "Pour une histoire écologique de la France rurale," p. 43~82, in *Histoire de la France rurale*, vol. I, Paris: Seuil.
12. J. Brossier, L. de Bonneval, E. Landais(1993), *Systems studies i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Paris: INRA-Eds.